

1번 문항 (반드시 해당문항과 일치하여야 함)

1-1) 제시문 (가, 나)는 개인들 간의 관계 맺음 양상을 보여 준다. 두 제시문의 개인은 모두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 그 관계에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가)에서는 죽은 아내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서로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나)는 가벼운 관계 속에서 상대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 준다.

그러나 (가)의 개인들 간에는 대면적 접촉이 존재하지만 (나)의 개인들 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자는 오프라인 접촉이지만 후자는 온라인 접촉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의 개인은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을 거북해하고 화투를 치자는 핑계로 계속 같이 있고자 한다. 반면 (나)의 개인은 버튼 하나면 언제든지 친구를 부를 수 있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귀찮음을 느낄 때에는 자발적으로 고립되고자 한다.

1-2) 제시문 (나)에서는 상호무관심한 관계 맺음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간접적 접촉이 주를 이루게 되며 정작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재한다. 따라서 개인은 현실로부터 고립되며 마음을 표현하는 진정한 소통이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에서는 나와 타인을 동일시하며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가진다. 마주 앉아 마음을 터놓고 직접적 접촉을 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 맺음에 따라 (나)의 관계 맺음의 문제점을 해결 가능하다. (나)의 개인들은 먼 친구보다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상호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대면적 관계가 귀찮다고 회피하는 자세가 아닌 대면적 관계가 진정한 관계이며 스스로를 보듬어 줄 수 있음을 인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또한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에 대해 공감해 주고 위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번 문항 (반드시 해당문항과 일치하여야 함)

2-1) 제시문 (가)의 차액지대 발생 원리는 같은 비용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보다 더 적은 효용을 얻을 경우, 같은 비용의 투자하에 최대 효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효용을 얻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감수하면서 같은 투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차액지대 발생 원리이다.

(나)에서의 경제적 지대는 본인의 능력이 얼마나 희소한 가치를 지니느냐에 따라 현재 소득과 기회비용의 차이가 달라진다. 차액지대 발생 원리와 경제적 지대 개념의 공통점은 얼마나 희소한지, 즉 최상의 가치에서 최대 효용을 얻고 이것보다 못한 가치는 차등적으로 적은 효용을 얻는다는 점이다. 차액지대 원리에서는 토지의 등급에 따라 같은 비용을 투자함에도 각각 다른 효용을 가져온다. 이와 동등하게 경제적 지대 개념에서도 사람들마다 각각 얼마나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본인이 얻는 소득이 다르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차등성을 지닌다.

2-2) 제시문 (다, 라) 모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에서는 기업가들이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허용한다. 또한 (라)에서도 개인의 천부적 재능은 차등적이므로 최소 손해자를 고려한다는 경우 하에 타고난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한다.

그러나 (라)에서 볼 때 (다)를 비판 가능하다. 왜냐하면 혁신을 추구한 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며 특허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최소 손해를 얻는 기업은 계속 불리한 처지에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 손해자인 기업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가능하다.